
해외단기연수·교육 보고서

(브록포트, 미국)

제출일: 2018년 2월 12일
작성자: 박성훈(일반범죄연구실)

1. 개요

가. 연수자

- 박성훈 연구위원

나. 출장일정

- 2017년 11월 6일~12월 6일

다.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미국 뉴욕주립 브록포트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Dep. of Criminal Justice, The College at Brokpor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라. 출장목적

- 해외단기연수·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 뉴욕주립대학 브록포트 대학교(The College at Brockport) 형사사법학과(Dep. of Criminal Justice)의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들과 세미나를 통한 인적교류의 기회를 가짐
 - 브록포트 대학교 형사사법학과는 학과장 Ann W. Bunch 교수를 비롯해 7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고, 약 4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음
 - 브록포트 대학교에서 참관수업은 Kim MoonSun 교수의 경찰학(Police Process) 및 Swaroop Kumar Korni 교수의 교정학(correction) 수업 참관
 - 교수들과 소년원 출원생 사후보호(aftercare) 프로그램에 관한 세미나 진행
 - 브록포트 대학교가 속해 있는 경찰서(Brockport Police Department) 및 뉴욕주 소속의 소년원(Industry residential Center) 기관 방문견학
- 해외단기연수·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열리는 미국범죄학회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이론 및 정책 동향을 배우는 기회를 가짐
 - 제73회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 1,000개가 넘는 세션에서 최신의 연구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함
 - 아울러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 소속의 연구자들과도 인적교류를 진행함

마. 주요일정

일정	내 용
11월06일 (월)	o 11:15 인천 국제공항 출발 o 16:54 미국 DETROIT 경유 ROCHESTER 공항 도착
11월07일 (화)	o 11:00 - 14:00 - Brockport Faculty Greeting & Luncheon Meeting
11월09일 (목)	o 17:00 - 20:00 - New York Industry Residential Center Visiting
11월14일 (화)	o 14:00 - 18:00 - BJS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Workshop
11월15일(수) ~17일(목)	o 11.15-17. 08:00 - 18:00 - 2018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in Philadelphia, PA
	o 11.16. 19:00 - 21:00 - 2018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Annual Meeting
	o 11.17. 14:00 - 16:00 - Special Address : Robert J. Sampson (Harvard University, Sociology)
11월20일(월)~ 11월28일(화)	o 11:00 - 12:15 - Class Participation: Police Process by Moonsun Kim (HARTWL 0122, Tuesday & Thursday) o 14:00 - 15:15 - Class Participation: Correction by Swaroop Kumar (HOLMES 0106, Tuesday & Thursday)
11월29일 (수)	o 10:15 - 12:00 - Brockport Police Department Visiting
11월30일 (목)	o 11:00 - 14:00 - Brockport Faculty Seminar
12월5일 (화)	o 06:02 ROCHESTER 공항 출발
12월6일 (수)	o 16:30 인천 국제공항 도착

2. 해외단기연수·교육 내용

1) 브룩포트 형사사법학과 세미나(Criminal Justice Faculty Seminar)

- o 브룩포트 대학교 형사사법학과는 형법학,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을 비롯해 포렌식사이언스, 양적방법론, 비교형사법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학과장 Ann Bunch, Korn Swaroop Kumar, MoonSun Kim, Megan Kienzle, Ingrid McGuffog, Bora Lee, Yu Zhang)가 재직 중에 있다.
- o 박성훈 연구위원은 브룩포트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세미나를 통해 KIC의 연혁, 조직, 업무를 소개하고, KCVS(Korean Crime Victim Survey)와 CCJS(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에 등록된 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 o 2017년에 박성훈 연구위원이 진행한 소년원생의 출원 후 사회정착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였으며, 미국에서 소년범죄자 사회정착지원의 정책동향에 대한 자문의견을 구했다.



△ 브룩포트 Dep. of Criminal Justice 교수들



△ 브룩포트 대학교 전경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The KIC in Seoul was established a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1989 by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research on crime, providing advice and suggest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nd bridging between governmental – especial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National Police Agency – and private sectors – academic scholars, civil activists.

In 1998, the KIC held the 12th World Congress on Criminology, and in 2012 we also held the 4th Asian Criminological Society Annual Conference.

Our members are about 50 researchers who are graduated from abroad universities and domestic universities, and achieved a Ph.D. Management staffs are also about 20 in regular job, and research assistants are about 40 in part-time job.

The KIC received a budget from the Korean government, so we proposed research proposals to get a research fund.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is a control tower of 23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KIC make a decision whether or not the proposed budget is proper. Also, the National Assembly audit an account before and after the research every year.



Our organization has a two broad research divisions which are Criminal Law Research part and Criminological Research part.

My research topics

I studied a sociology and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I'm interested in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crime prevention, and research method, especially quantitative methods.

I'm working in the project this year about the social reintegr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in detention center as like custodial facilities. This project is planned for three years.

First year, my colleagues including Dr. Jo (Young-o) and I reviewed the present support system and the condi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who reentry after detention centers by in-depth interview with boys and girls, facility staffs, and supporters in private sectors.

From second year to third year, we have a plan to follow up juvenile delinquents after 10 detention centers every 6 months, so we would like to collect a penal data. However, we need agreement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a cooperation of Ministry of Justice. I hope to proceed this research.

△ 브룩포트 형사사법학과 세미나 발표문 中 일부

2) 브룩포트 형사사법학과 수업(Criminal Justice Classes) 참관

- 이번 해외단기연수·교육에서는 브룩포트 형사사법학과 배려로 김문선 교수가 진행하는 경찰학 수업과 쿠마 교수가 진행하는 교정학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김문선 교수의 수업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쿠마 교수의 수업은 오후 2시부터 75분간 진행되었다.
- 참관한 경찰학 수업은 '지역사회 범죄예방(Community Policing)'에 대한 내용으로 김 교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개념, 연원,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사회범죄예방 전략은 이후 지역의 현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지향 범죄예방(Problem Oriented Policing)'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범죄, 무질서, 지역쇠퇴, 열악한 삶의 질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경찰학 수업에서 특이한 점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팀별로 주제를 정하여 '비디오 발표(Video Presentation)'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인데, 김 교수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거부감도 있었으나 기술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비디오 제작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수업발표를 참관한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발표결과는 교수,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학점에 반영되었다.
- 참관한 교정학 수업의 내용은 '제도적 프로그램(Institutional Programs)'에 관한 것으로 쿠마 교수는 교정 프로그램은 행동변화(changing behavior)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행동교정의 구체적인 목표는 건전한 경제활동에 기여, 공공책임에 대한 인식, 비용-편익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교육, 레크레이션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범죄자 재활(rehabilitation)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브록포트 대학교 학생들은 90.0% 이상 백인이며, 지역적으로도 상당수 학생들이 근교에서 통학을 하고 있고, 대체로 친절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 Police Process 수업 중인 Kim 교수



△ Correction 수업 중인 Kumar 교수



△ Police Process 수업에서 Video Presentation



△ Correction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3) 뉴욕주 소년원(Industry Residential Center) 방문

- 소년원 방문은 현재 브록포트 형사정책과에 강의를 나오고 있는 소년원 소속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소년원 방문과 달리 미국에서는 가능한 외부인과 소년원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주간이 아닌 일과를 모두 마친 야간에 방문을 허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방문시간은 북반구의 겨울이라서 날이 한참이나 어두워진 오후 6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 뉴욕주 Industry Residential Center 전경



△ 뉴욕주 IRC 방문견학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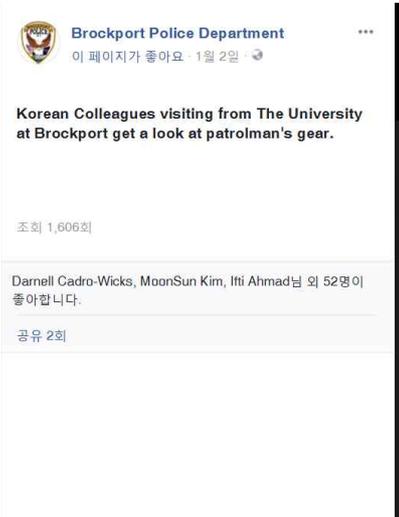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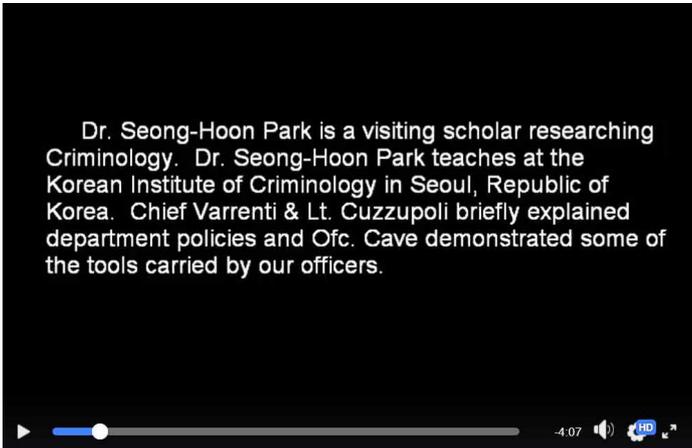
- 소년원 출입통제는 매우 엄격해서 높은 철조망으로 에워싸고 두꺼운 철문을 통과한 뒤 검색대에서 가벼운 몸수색과 신분증과 핸드폰 등을 모두 반납한 후 입장이 허가되었다.
-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소년원은 크게 생활관, 의료센터, 약물센터, 체육관, 직업교육시설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숙소와 교실이 바로 붙어 있다는 점이고, 약물범죄자가 많은 탓에 약물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 생활관은 기본적으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욕실·샤워실과 생활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해 등 위험방지를 위해 분리수용을 위한 징벌방에는 CCTV를

설치한다고 설명하였다. 직업교육시설은 허브 등 식물재배를 위한 농업교육과 수족관 제작을 위한 배관설치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다. 체육활동은 실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인락커마다 이름이 기재된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소년원 내에서 점수가 높은 소년은 체육관 한 칸에 마련된 X-BOX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의 소년원 교사 역시 아이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당수 소년원 교사들이 상대를 위압할 정도의 큰 체격으로 소년원 교사로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4) 브록포트 경찰서(Brockport Police Department) 방문

- 브록포트 경찰서는 미국 경찰조직의 90.0% 이상을 차지하는 타운 경찰조직(Town Police) 중 하나이다. Varrenti 서장은 브록포트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경찰로 대규모 도시 경찰(NYPD, LAPD)이나 주 경찰(State Police) 혹은 보안관(Sheriff)에 비해 타운 경찰의 장점을 자신감 있게 피력하였다.
- 브록포트 경찰서와 같은 타운 경찰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친밀도가 높고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특성이나 건물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특히 다른 지역의 타운 경찰과 달리 로체스터시 경찰(city police)이나 브록포트대학 경찰(college police), 보안관(Sheriff) 과도 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브록포트 경찰서의 자랑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다만, 오랜 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미국 경찰 스스로 명예와 자부심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급여수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았다.
- 최근 미국 경찰조직의 핫이슈 중 하나는 잇따른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Body Camera)’로 Varrenti 서장은 바디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한 경찰관에게 우리를 직접 촬영하여 브록포트 경찰서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 경찰관이 바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은 브록포트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도 하였다.
- 브록포트 경찰서 부관(lieutenant)의 안내로 경찰서 내부를 관람하였는데, 내부는 서장실, 조사실(성인 2인실+소년 1인실), 유치장, 직원휴게실 등으로 2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기에는 적합한 규모였다. 부관의 설명에 따르면, 브록포트 지역이 속한 로체스터(Great Rochester)는 범죄율이 높은 편이나 브록포트는 가벼운 절도나 폭력은 발생하나 심각한 범죄(felony) 발생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 브룩포트 경찰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성훈 연구위원 방문 동영상
<https://www.facebook.com/109236079477338/videos/486478935086382/>



△ 브룩포트 경찰의 Body Camera로 촬영한 모습(1)



△ 브룩포트 경찰의 Body Camera로 촬영한 모습(2)

▷ 브룩포트 경찰서 방문견학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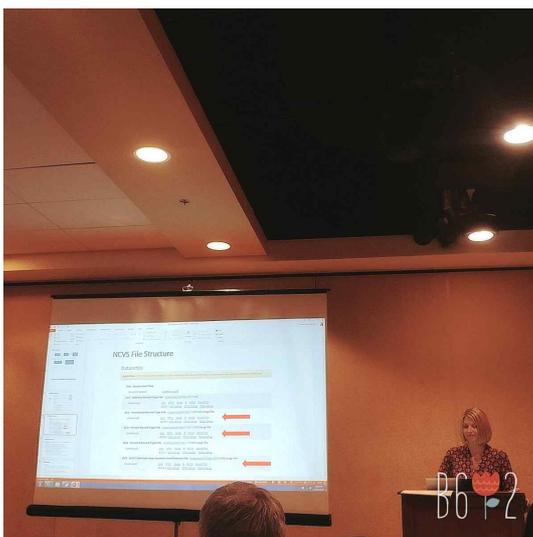


5) NCVS 워크숍(National Crime Victim Survey Workshop) 참석

-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주관하는 전미범죄조사(NCVS)는 여러 학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많은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다른 나라와 비교연구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Analyzing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Workshop’이라는 주제로 개편된 NCVS를 소개하고, 데이터를 신청하는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Analyzing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Workshop
November 14th, 2017 1-5pm Marriott, Franklin 1, 4th Floor

- NCVS methodology overview
 - Sample design & selection
 - Survey Instrument
- NCVS public use data structure
- Replication of estimates from the Criminal Victimization, 2015 bulletin
-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 Discussion of prevalence estimates from the Criminal Victimization, 2015 bulletin
- Utilizing the longitudinal nature of the NCVS files
- Additional NCVS opportunities
 - NCVS restricted-use files
 - Using the NCVS with other data sources
 - NCVS subnational estimation
- Supplements
 - Schedule of current supplements
 - Public use data files
 - Example analysis
- The future of NCVS
 - NCVS redesign (sampling, mode, instrument)



△ NCVS 워크숍 발표(1)



△ NCVS 워크숍 발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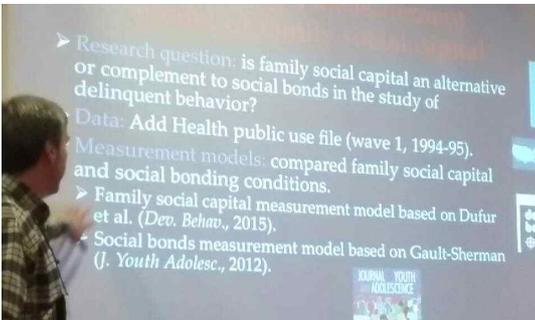
- 워크숍에는 약 30명이 참석하여 BJS 직원들의 발표를 경청하였고, 발표 후엔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인 학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는데, 한 교수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NCVS와 KCVS를 비교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6) 미국범죄학대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참가

- 미국범죄학대회는 비록 미국에서 개최되는 연례학회이기는 하나 세계범죄학계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최신의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한 미국의 대표학자들과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의 학회이다. 2017년 미국범죄학회장은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의 James P. Lynch 교수로서, 그는 ‘Crime, Legitimacy and Reform: Fifty years since the President’s Commission’이라는 대주제 발표를 맡았을 뿐 아니라 Presidential Panel Session, Thematic Session, Roundtable 등에서 다른 학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인상 깊었던 몇 개 발표를 살펴보면, John P. Hoffmann(Brigham Young University) 교수는 ‘Family Capital and Juvenile Delinquency’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논의가 범죄원인을 설명할 때는 가족자본(family capital)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가족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네덜란드 Jennifer Doekhie(Leiden University) 교수는 ‘Conventional Aspirations and the Role of Identity Change in the Process of Desistance’이라는 발표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재진입(reentry)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체성 변화(identity change)라고 하면서, 변하고 싶다는 욕망(aspirations)만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고 한 개인의 인지변화(cognitive transformations)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범죄와 가족자본의 관계에 대한 발표



△ 범죄자의 사회재진입에 대한 발표



△ 범죄발전에 관한 Cambridge Study 발표



△ 범죄피해현상에 관한 Thematic Session 발표

- 영국의 저명한 범죄학자 David Farrington 교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자 및 동료들과 함께 ‘New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라는 Thematic Session에서 Cambridge Study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련의 시리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각 세부주제는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Reported Offend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sults From Two Generations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Longitudinal Patterns in Aggression and Testosterone: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Risk Factors’, ‘Differential Predictors of Male versus Female Psychopathic Traits in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등 흥미로운 4개 연구를 발표하였다.
- 미국의 학자들은 분과(division)별로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범죄피해연구 분과에서는 이 분야의 대표학자인 Janet Lauritsen 교수(University of Missouri–St. Louis)의 사회로 Eric P. Baumer, Karen Heimer, Andromachi Tseloni 등이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하여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피해 현상을 이론적·방법론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7) 재미한인범죄학회(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참석

- 재미한인범죄학회는 2009년에 시작되어 9차례의 연례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구성원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 중인 한국인 학자들의 모임이다.
- 2017년 정례모임에서는 제4대 회장을 맡았던 전돈수 교수가 임기를 마치고 이번 해외단기연수·교육 기관인 브록포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문선 교수가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행사를 가졌다.
- 미국범죄학회에서 KOSCA는 세 개의 패널 세션과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Contextual Effects? Spatial Dependence? Spatial Regressions? Where We Are and Where We Go!’라는 주제로 진행된 방법론에 관한 토론이었다.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론인 만큼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KOSCA 소속 교수들의 공간분석방법 발표



△ KOSCA 연례모임에서 발표하는 Sampson 교수



△ KOSCA 연례모임 기념촬영

- 이번 KOSCA 일정에는 과거 ASC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하버드대학교에 재직 중인 Robert Sampson 교수가 ‘New Directions in Life-Course Criminology’란 주제로 guest speech를 하는 특별한 순서가 포함되었다. Sampson 교수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life-course criminology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혹은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을 고려하면서 개인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해외단기연수·교육훈련을 마치면서 느낀 소회는 많은 사람들과 학문적 토론 뿐 아니라 실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적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법기관의 방문을 통해 미국 사법제도의 운영과 실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외단기연수·교육 기회가 개인적으로는 보다 넓은 시야와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고 자평한다.